| 현불 논단 |

불교 생명존중사상과 낙태문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韓 낙태 34만 2천여 건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
미혼자 낙태 건수 1~2% 증가

현재 낙태죄는 법이 금한 상황
모자보호법 근거해 제한적 허용
폐지 · 절충론 분분… 불교 의견 無

경전 근거 윤리 가이드라인 필요
'불교생명윤리위원회' 재구성 시급
낙태 대한 종단적인 숙의 모아야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의 태안에서도, 그리고 출태를 해서도 독립적인 인간 존재이며, 독자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국의 낙태(인공임신중절수술) 현황에 의하면 일부 국민들이 생명윤리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태 시술 건수는 34만2,433건이다. 그 중에서 기혼자는 19만8,515건이며, 미혼자는 14만3,918건이다. 출생아수는 43만8,062명이며, 낙태아수는 34만2,433명으로서 출생아수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이다. 이 수치는 OECD국가 중에서 제1위의 수치이다.

2005년의 발표이후 피임방법 홍보,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 · 양육환경 개선 등이 전개되어서 201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낙태 시술 건수는 16만8,738건으로서 2005년보다 낮아졌으며, 미국 · 프랑스 · 영국에 이어 4번째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전과는 달리 미혼자의 낙태 시술 건수가 해년마다 1~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낙태는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5월에 발효된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낙태법에 대한 찬성론, 폐지론, 절충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견에 의해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아직도 찬성과 반대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낙태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 너무나 미온적이었던 불교계 종단들이 중심이 되어 교학적인 토대위에서 숙의했으면 한다. 그리고 2004년 조계종에 '불교생명윤리위원회'가 발족돼 4년 여간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와 자료집을 발간하고 해체되었던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돼 종책준비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한다.

불교계의 종책은 붓다의 사상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태어남은 인(因)과 연(緣)에 의해서 존재한다. 인은 원인으로서 중생이 윤회 속에서 행한 행위의 결과인 업(아뢰야식)이며, 연은 조건으로서 부(=정자)모(=난자)이다.

태어남의 조건은 삼처현전(三處現前)으로서 어머니의 건강상태 · 시기가 알맞고, 부모의 성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리고 중음신이 있어야 한다. 이 3가지가 갖추어 지면 중음신은 어머니의 태안에 수태된다. 수태된 태아는 어머니의 태안에서 성장하여 10개월 후에 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머니 태안에 존재하는 태아는 어머니의 몸을 빌어 성장하면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의식, 감각기관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출생하게 되면 한 살로 칭한다. 이 독립적인 생명체는 임산부, 혹은 부모의 것, 즉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장수멸죄경〉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통한 낙태를 살태(殺胎)라고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액체의 태아에 해당하는 갈라람(수태부터 1주일)을 비롯해서 여러 형태의 태아를 타태(墮胎, =낙태)하게 하면 중대한 살생죄를 범한 것이다."

이외에도 낙태에 대해서 경 · 율 · 론의 삼장에서 다양하게 설하고 있다. 이제 낙태에 대해 불교계 종단들이 숙의하여 사회와 함께하는 동체대비의 모습으로서 교학에 근거한 매뉴얼 준비, 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홍보 등의 대안 준비와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社說

사찰, '가족 중심'으로 거듭나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이 변화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고 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주요사찰은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불교계 내에서는 그동안 세대 전승에 실패했다는 진단이 많았다. 그 이면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사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50대 이상 연령의 불자들로만 구성된 형태에서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는 지적이 많았다.

어르신들은 자신은 사찰에 나가지만 정작 3~40대 부모들은 바빠서, 영유아 · 어린이들은 너무 어려서 사찰에 보내지 않는 것이 특징 아닌 특징이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서울 조계사에서는 가족연등공방이 처음으로 열리고, 서울 봉은사는 가족 포토존 등을 운영했다. 물론 예년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사찰을 찾았다. 속초 신흥사는 연령별 축구대회를 열어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제는 더욱더 불교계가 변화해야 한다. 이웃종교계는 이미 키즈카페를 비롯해 놀이방, 어르신 쉼터, 찻집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보는 예배 등으로 참여를 이끌고 있다.

쉼터, 놀이방 등 인프라 구축부터 전통놀이, 가족법회 등 소프트웨어까지 앞으로 불교계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는 많다.

이제 가족이 함께 신행활동을, 여가활동을 즐기는 불교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봉은사 시왕도 환수에 부쳐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봉은사의 시왕도가 반세기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이를 기념해 조계종은 5월 16일 환수 공개식을 했고, 당사자인 봉은사도 같은 날 오후 시왕도를 이운해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번에 환수된 봉은사 시왕도는 18세기 후반 작품으로 시왕 2존이 함께 배치된 매우 독특하면서도 독창적인 도상을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

봉은사 시왕도 환수 역시 종단과 사찰, 국가기관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긴밀한 협조로 돌아오게 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외경매시장 모니터링 중 시왕도 1점을 발견했고, 이를 안 조계종은 '봉은사 시왕도'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환수추진위원회가 미국 경매에서 시왕도를 낙찰받아 환수하게 됐다.

이 같이 '기관의 모니터링- 종단의 확인- 해당 사찰 중심의 환수'는 현재 문화재 환수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나 종단이 재원을 출연해서 문화재를 환수한 경우 그 소유권이 정부 · 종단으로 가게 된다. 해당 사찰이 환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필수다.

봉은사 등 대형사찰의 경우 환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 등지에 위치한 소형사찰들은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환수 자금은 많은 부담이 된다.

안정적인 환수를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성보 환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정 재원을 사찰에 우선 지원하고 추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금이 운용된다면 성보 환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해외로 유출된 많은 성보들이 속히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특별기고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종교가 수승한 가르침이 되려면 인간 삶의 가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파악된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인도적 역할(役割)이 종교가 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인간 삶의 가치대로 살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처방, 즉 로드맵을 과학적인 논리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과학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이다.

왜냐하면 인간 삶의 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공통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함이고 대자유의 삶의 추구이다. 불교는 이러한 행복과 대자유는 맑고 밝은 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의식이 발전하고 성숙할수록 행복과 대자유도 이에 비례한다. 좋은 의식은 항상 사려 깊고 헌신적이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나쁜 의식은 자신의 이기심 즉, 탐 · 진 · 치(貪 · 嗔 · 痴)라는 삼독심으로 나타난다.

2,600여 년 전 위대한 고타마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 속에서 증득한 삼명의 지혜(三明의 智慧: 宿命通, 天眼通, 漏盡通)에서 인간 삶의 가치를 명확하고 분명히 파악하고 파악한 그 진리를 인류에게 사성제(四聖諦)라고 이름했으며, 이 진리를 통해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체계와 수행체계를 과학적인 논리로 제시하시고 반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의 종교, 즉 초기불교를 과학적인 종교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현대과학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증명방법에 부합하면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의적 증명(Definitional Proof) 방법이다. 이는 쉬운 예로 어떤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들 수 있다. '남자다', '여자다', '회장이다', '사장이다' 등등이다. 이것을 '정의적 증명'이라고 한다.

둘째, 논리적 증명(Logical Proof) 방법이다. 이는 수학에서 '1×0은 0이다'라고 할 때, 이것을 '논리적 증명'이라고 한다.

셋째, 실험적 증명(Experimental Proof) 방법이다. '대기압 1의 상태에서 불로 물을 끓일 때, 섭씨 100℃가 되면 물이 끓는다.' 누구라도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실험을 하면 똑같은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실험적 증명'이라고 한다.

넷째, 관찰적 증명(Observational Proof) 방법이다.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365일이 걸리면서 자전과 공전을 한다든가 개기일식, 개기월식 같은 현상은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이 증명된 것이다. 이것을 '관찰적 증명'이라고 한다.

다섯째, '법리적 증명(Evidential Proof)' 방법이다. 법리적 증명은 범인을 잡는 데 주로 응용된다. 예를 들면 지문 채취나 DNA 분석검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 등을 '법리적 증명'이라고 한다.

이 다섯 가지 증명방법 이외에 불교의 명상적 증명(Meditational Proof) 방법이 추가로 등장했다. 그래서 초기불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이라고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